

# 캔버라 한인성당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9)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영 성 체	파 견
<폴더 19번> 나의 의지를 주님께 맡길 때	<폴더 13번> 마음을 드높이	<폴더 21번> 아버지 뜻대로	<폴더 12번> 하늘의 태양은 못되더라도

제 1독서 | 이사야서 49,3.5-6

화답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좌)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우)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좌)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우)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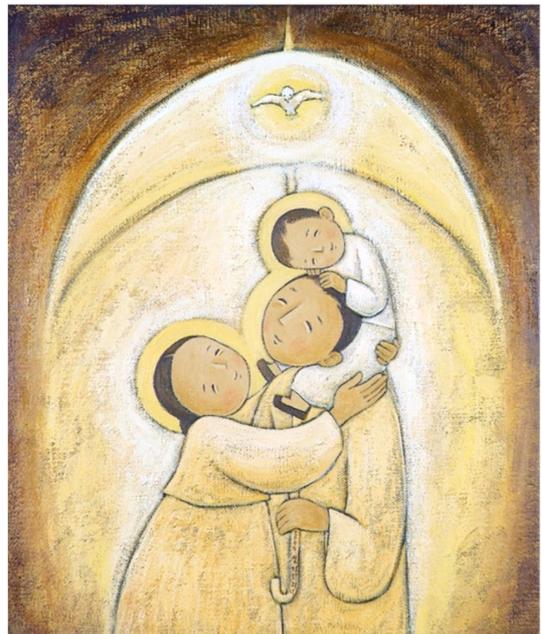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29-34



## 오늘의 복음 - 요한 1,29-34

그때에 29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30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31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32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

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33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34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 나의 하느님 공부 - 묵주의 힘 (공지영 마리아 작가)



고 했고, 그는 지난 여름부터 하루에 100단을 드린다고 했다.

지난달 그를 만났다. 정말 깜짝 놀랐다.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있는 듯했다. 만나지 못했던 몇 달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연히 보였다. "매일 100단을 해요. 가끔은 80단밖에 못 해요. 그런데 괴로워요. 제 사건(범행)이 보여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신부님과 우리 봉사자들은 모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우리는 미사 중에 거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다. "묵주기도 중에 그것이 보여서 정말 괴롭습니다."

내가 물었다 "그래도 그 고통이 지난번 처음 만났을 때 죽고 싶었던 그 고통과는 다르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의 얼굴에서는 심지어 아름다운 빛까지 어리고 있었다. 이 짧은 시간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힘은 무엇인가. 나는 약간의 충격까지 받았다. 묵주를 강력히 권한 것은 나였지만 '묵주가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었다. 그는 아직 내 첫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묵주 속에 그 모든 대답이 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형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심하게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들은 죽어야 해요. 사형제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기도 한다. 2011년 노르웨이에서 청소년 캠프에 침입하여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코로나가 끝나던 2022년 여름이었다고 기억한다. 그 사형수는 다른 곳에서 사고를 저질러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다짜고짜 "어떻게든 죽고 싶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엄청난 어둠에 덮여 있었고, 먹지도 않아 몸은 거의 어린아이와 같이 말라 있었다. "정말 믿음이 있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죽고 싶어요." 실제로 그 위험 때문에 그는 특별 관리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한가지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하느님은, 그래요 혹시 계신다면, 지금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걸 함께 말해봅시다."

그는 아예 이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다. 약간 충격을 받는 것도 같았다. 그 후로 3년 동안 나는 일 년에 서너 번 그를 만나 미사를 드렸다. 복음을 나눌 때 나는 그에게 '힘들 테니 그저 묵주기도만을 하자'

아이들 77명을 죽인 브레이비크가 있었다. 노르웨이 국민은 당연히 사형제의 부활을 원했다. 그런 인간을 우리 세금으로 살려둘 가치가 있을까. 이에 대해 총리 스톨텐베르그는 담화를 발표한다. “우리의 대응은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인간애여야 한다.”

저들의 무기인 폭력과 증오가 아니라 더 많은 관용과 인권으로 이것을 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에게 이런 말과 품격을 전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린다. 선진국이란 돈만 많아 되는 것은 결

단코 아니다. 사형제는 부활해야 한다는 이들에게 나는 대답한다. “솔직히 가끔 생각해요. 하느님의 저울로 달면 제 죄가 저 사람들보다 가벼울까요? 진짜요?”

돌아오는 길에 나도 요즘 들어 게으르게 바치던 목주를 잡았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 주 하느님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에제 18,23)

목주, 내 삶의 동아줄이다.

### 식탁에서 사라진 리추얼(Ritual), 잊혀가는 서사 - 김용은 제오르지아 수녀님



"배고파서 내려왔어. 진짜 배고 파서..."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왜 내려왔느냐."는 친구의 다그침에 혜원이 어색하게 내놓은 대답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도시를 떠나, 그것도 한겨울 시골로 내려온 이유가 '배고픔'이라니요. 그러나 혜원이 느낀 허기는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삶은 점점 더 깊은 허기를 남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허기를 안고 혜원은 고향 시골집으로 돌아옵니다. 시골집은 어머니의 품이자, 자신의 존재 근원이 숨 쉬는 공간입니다. 영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흐르고, 제철 재료로 차려진 밥상이 반복될 뿐입니다. 어머니는 부재하지만, 그 부재 속에서 어머니의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집니다.

"짜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것, 타이밍이다. 기다린다. 기다린다."

씨앗은 심는다고 곧바로 열매를 맺지 않고, 계절은

건너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 느린 리듬 속에서 혜원의 삶도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배추를 다듬는 손끝과 된장을 푸는 손놀림 하나하나가 기억을 깨웁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과 사랑을 불러옵니다. 요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상처 난 혜원의 내면을 조용히 치유해 갑니다. 요리하는 과정은 하나의 리추얼, 곧 정성스럽게 되풀이되는 삶의 의식입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지피고, 간을 맞추는 이 반복 속에서 관계는 깊어지고, 함께 차리고 먹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식탁은 너무 빠릅니다. 배달 음식과 즉석 음식은 편리하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도 이야기도 머물지 않습니다. 삶의 의식이 사라질수록, 우리의 서사 또한 점점 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는 자리에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성찬은 이해의 시간이 아니라 기억의 시간입니다. 빵을 떼는 이 거룩한 의식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기억합니다. 이 성찬의 은총은 우리 영혼이 느끼는 가장 깊은 허기를 채워 줍니다. 가정의 식탁도 제대 위의 성찬레처럼, 사랑을 나누고 기억하는 거룩한 서사입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는 묻습니다. 빠른 음식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의 식탁에서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지를. 정성껏 차린 한 끼, 그 평범한 의식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식탁이 하느님 말씀이 자라나는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공지 사항

### 1. 예비신자 교리 안내

가톨릭 교회의 입교성사인 세례성사를 위한 예비자 교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주변에 예비자 교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2월 8일(주일)까지** 성당 이메일 (canberra.kcc@gmail.com) 혹은 성당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카카오톡 채널명: 캔버라 한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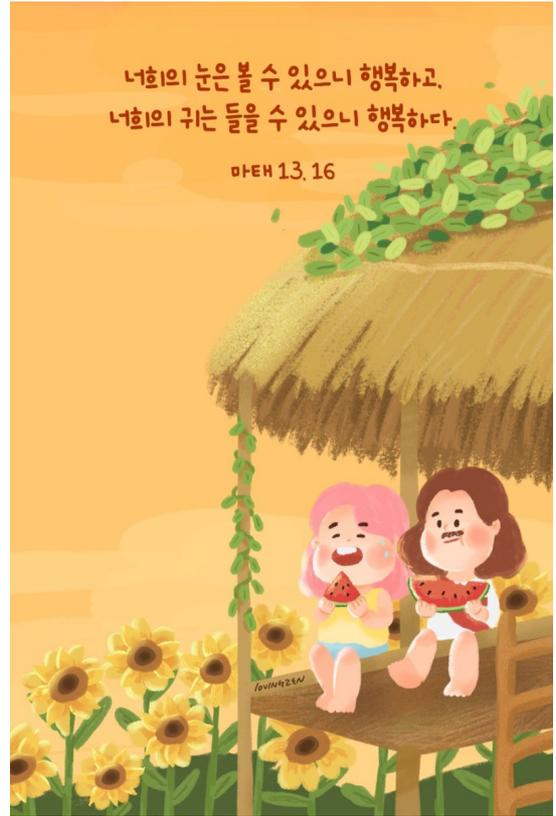
### 2. 손님 신부님 주일미사 집전 안내

다음주 주일미사는 '손상복 요한보스코' 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 3. 사순시기 미사곡 변경 안내

이번 사순 제 1주일 (2월 22일)부터 미사곡을 기존 가톨릭성가 미사곡이 아닌, 성가 폴더에 있는 '그레고리안 성가 미사곡'으로 바꾸어 부르겠습니다.

\* Kyrie(자비송), Gloria(대영광송), Sanctus(거룩하시도다), Agnus Dei(하느님의 어린양)



### | 공동체 기도 지향

- \*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 \* 본당 아이들 & 청소년들을 위해
- \* 교황님 기도 지향

<1월: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느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희망의 원천이 되어, 더욱 형제애 넘치고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를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지향이 있다면, 이메일 혹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알려주세요)

###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 퀴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3 West Ave, Queanbeyan, NSW

### | 봉헌금 & 교무금 | (1월 10일 ~ 1월 16일)

봉헌금	\$ 179			
교무금	\$ 460			
구민식	안영규	양명식	양홍석	윤현태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

### | 이번주 말씀 새기기 |

<p>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루카 5,13)</p>
--